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0일 오후 2시, 전주실내체육관 건립부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외빈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착공식이 열렸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착공식에서 첫 삽을 뜨고 있는 모습이다.

## 복합스포츠타운의 중심 전주실내체육관 '첫 삽'

시,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

전주시가 복합스포츠타운의 중심시설이 될 전주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시는 10일 오후 2시, 실내체육관 건립부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외빈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1973년 전북대학교 인근에 조성된 이후 50년 넘게 이용해온 기존 실내체육관의 건물 노후화와 시설 안전성 문제, 협소한 공간, 부족한 편의시설 등으로 신규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 신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신축되는 실내체육관은 총사업비 652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3층에 연면적 1만4,225㎡, 수용인원 6,000명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곳은 배드민턴과 배구, 탁구, 농구 등 실내 체육 종목과 문화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지어질 예정이다.

특히 시는 새로운 실내체육관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생동감 있고, 지속 가능한 체육 여가 활동을 영위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기능도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향후 각종 전국대회와 국제경기 등 다양한 스포츠 대회 및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축 부지인 덕진구 여의동 일대에는 기존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새로운 실내체육관과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국제수영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이 집적화가 예정돼 있다.

시는 향후 이곳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스포츠시설 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왔으며, 실시설계 및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돼 이날 착공식을 열게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새로운 실내체육관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전주가 스포츠와 문화행사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공사 기간 안전과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며, 지속될 새로운 실내체육관을 전주시도 소중히 생각하는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 오는 2026년 우리 곁에 다가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복기 기자

## 첨단 바이오기업 3곳, 전북에 '등지'

자치도 등, 오에스와이메드 등 3개 기업과 협약

첨단의료기기 제조·줄기세포 활용 치료제 개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바이오 관련 앵커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첨단 의료기기 제조기업과 줄기세포를 활용한 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연구하는 첨단 기업들이 전북에 등지를 틀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인태 전주부시장, 허전 익산부시장, 윤여봉 전북경진위원장, 이세철 오에스와이메드 대표, 임영경 라파라드(주) 대표, 주경민 메디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3면)

3개 기업의 투자협약 금액은 총 210억 원이며 오에스와이메드와 라파라드는 전주에, 메디노는 익산3산단에 등지를 틀어 총 145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번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오에스와이메드는 지난 2011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 카테터, 튜브 중심의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으며, 지난해 25억 원

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지속 성장 중이다.

오에스와이메드는 지난 2011년 정부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의료용 튜브 압출을 시작하여 부처 과제를 지속 수행하며 안정적으로 R&D자금을 지원받아 제품 연구개발에 매진 중인 카테터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업이다.

또한, 라파라드는 안 근접치료와 양성자 치료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향후 원대병원에서 건립 예정인 양성자 치료센터와 협업하여 양성자 치료 제품 개발, 판매 등으로 기업 성장이 기대된다.

익산에 투자를 약속한 메디노는 2018년 설립되어 줄기세포를 활용한 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연구 중인 기업으로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분야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메디노는 동물 바이오에 강점이 있는 익산에서 향후 반려동물 관련 치료제 개발과 연계해 동물바이오산업 육

성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말과 4월에 바이오특화단지와 기회발전 특구를 신청한 전북자치도에는 이처럼 바이오 기업들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전북자치도는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공모하는 바이오특화단지과 바이오 특구를 포함한 기회발전 특구를 신청하고 관련 기업들을 꾸준히 유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주, 익산, 정읍을 중심으로 넥스트바이오, 제이비케이랩, 인핸드바이오 등 국내 최고기술 선도기업 7개사가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국내 바이오 관련 46개 기관 및 하버드의대 나노메디슨연구소,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미세생체조직시스템 연구센터 등 해외 바이오 관련 연구소 등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 5월 29일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는 등 산·학·연·병·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하고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기반을 견고

히 다져가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기업 유치는 물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 투자한 기업들이 전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은 "오에스와이메드, 라파라드 같은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전주에 유치됨에 따라 전주시의 첨단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며 "전주시는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바이오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업 지원 정책 마련 등 레드바이오 전주기 지원체계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허전 익산시 부시장은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바이오벤처 선도기업인 메디노가 투자를 결정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투자를 통해 익산시의 핵심사업이자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부안에 '오존주의보' 발령

오후에 오존농도 일시적 상승

전북특별자치도가 10일 오후 4시에 익산시, 오후 5시에 부안군에 도내 처음으로 오존(O3)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오존(O3) 주의보는 시간당 최고 농도가 0.1200ppm 이상 1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익산시의 오후 4시 최고 농도가 0.1204ppm, 부안군은 오후 5시 최고 농도가 0.1231ppm로 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존(O3)은 자동차 배출가스나 연소 시설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태양

광에 의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지상 20km 상공의 성층권에서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가까운 대기 중에서는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동식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오존(O3) 농도가 0.1~0.3ppm일 때 1시간 이상 노출되면 기침이 나고 눈이 따가워지는 호흡기 자극증상이 나타나고, 0.3~0.5ppm에서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운동 중 폐 기능이 저하되며, 0.5ppm 이상에서 6시간 이상 노출되면 마른기침과 가슴이 답답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만호 기자

GIME CULTURAL TOURISM CITY 2024

**다시 뛰는 김제  
기쁨의 축전**

##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뛰어난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김제만의 매력을 살려  
문화관광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겠습니다